

## 나만의 무화과 나무

성경에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. 무화과나무는 매우 평범한 나무여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도 비유와 예화로 많이 사용하셨다. 무화과나무는 여름 동안 충분히 익은 후 초가을에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나무다. 그런데 이 나무가 이전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았는데 한 번 맛을 본 수년 전부터는 길을 가다가도 무화과나무가 있으면 부러운 마음으로 유심히 보는 버릇이 생겼다. 하지만 나의 집 뒤뜰에는 한 번도 심지 못했다. 오로지 성도들이 집에 익은 무화과를 갖다가 주면 먹곤 했다.

그런데 LA로 다시 이사한 후 집 근처에 크고 푸른 무화과나무를 발견했다. 고마운 것은 그 나무가 주인집 담장 안으로 있지 않고, 담장 너머 길가에 서있는 것이었다.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. 새벽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늘 언제 무화과가 열릴 것인가? 기다리고 있었다. 하지만 그 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는데도 먹을 만하지 않았다. 한동안 그 이유를 몰랐는데, 내가 새벽예배를 다녀오는 동안 그 집 주인이 사다리로 나무를 타고 올라가 익은 것부터 매일 열매를 따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. 아침에 그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며 지나는 곳이라서 그런지 그 집 주인의 무화과 관리는 대단했다. 그러다 보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맛을 볼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. 한 편으로 조금 너무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 나무는 자기 땅에서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었다.

하나님은 너그러운 분이시다.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나누시겠다고 한다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다.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.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나누어 주셨다. 하지만 나는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만을 위하여 있는 것으로 여기고, 내 마음대로 사용할 때가 많다. 그러한 나에게 “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”(레위기 19장 10절)고 말씀하신다. 주신 것들을 나누라는 말씀이다. 그 안에는 나의 시간과 건강, 주신 재주와 경험,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, 물질, 등... 나의 모든 것이다. 그것을 “버려두라”는 말씀이 나에게 “버리라”는 말이 아니라 너그럽게 살아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는 말씀으로 들려온다. 그 이유는 나도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잘 나누지 못하기 때문이다.

수년 전 내가 살던 집 앞에 배나무의 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대기 전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익은 것부터 따던 것을 생각하며 그 무화과나무 주인만 나무랄 수 없었다. 결국 나도 잘 익은 배를 먹지 못했기 때문이다. 그 다음 해부터는 충분히 익도록 놓아두니 내가 먹을 것이 많이 없었지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었다.

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?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의 소식이다. 과연 나는 잘 나누고 있는가? 아니면 그저 잘 간직하고 있는가? 만일 내가 잘 간직하고만 살아간다면 주위 사람들이 따먹는 것이 싫어 어두운 새벽 일찍 사다리를 놓고 익은 것부터 따내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? 생각된다.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천국의 많은 축복을 주위 사람들에게 계속 나누라고 말씀하신다.